

持續的인 異性交際에서의 葛藤表出行動

—大學生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Expression Behaviors of Steady Dat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김 예 정

조 교 수 김 득 성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 Kim, Yea Jung

Assistant prof. : Kim, Deuk Sung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flict expression behaviors of the steady dating among the college studen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When students had a conflict or disagreement with the partner, they who took only the Moderate Behavior were 5.5%, the Impolite Behavior were 26.7%, the Aggressive Behavior were 36.0%, and the Violent Behavior were 24.7%.
2. The conflict expression behaviors we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parental marital violence and attitude toward violence.
3. The Violent Behavior occurred somewhat in the intimate relationships and was defined "expressing love" or "contingent mistake" among the dating partners. Thus after conflict incidence, most of the dating relationships were continued.

I. 서론

이성교제(dating)란 어떤 계약적 의미나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위에 이루어지는 미혼 남녀간의 교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자유혼이 보편적이어서 자연히 이성교제는 청년기 후반에서 성인 초기에 걸친 주요한 사회적 활동의 하나가 되었으며, 대체로 남녀 모두는 결혼전 이성교제를 결혼을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강호철, 1985), 이성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간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여 궁극적으로는 결혼역할을 사회화해 나가게 된다(Clayton, 1979; Jorgensen, 1986; Knox, 1979).

지금까지 우리의 결혼전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관이나 배우자선택기준을 조사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결혼전 관계에서 파트너간의 상호작용이나 활동과 같은 결혼전 관계 자체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전 이성관계 자체에 초점을 두어 미혼남녀들이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외국의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이성교제에서의 갈등 표출행동에 대한 것을 보면, 결혼전 이성교제를 하는 거의 20-50퍼센트의 남녀가 갈등표출행동으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으며(Billingham, 1987; Stets, 1992; Stets & Pirog-Good, 1987), 결혼전 관계에서 폭력행동으로 갈등을 표출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중단연구(Makepeace, 1986; Roscoe & Benaske, 1985; Stets & Pirog-Good, 1987)에서는 이들이 결혼관계에서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을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결혼전 이성교제를 하는 미혼남녀는 갈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행동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경우가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얼마나 될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연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성교제시 폭력을 사용하는지, 한다면 관계에 대한 폭력의 영향은 어떠한지 등 폭력행동을 둘러싼 일련의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폭력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규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이성교제에서 지향해 나가야 할 갈등 표출행동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성교제를 하는 대학생들의 갈등표출행동의 경향을 알아보고 부차적으로 갈등표출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갈등표출행동 중 폭력행동을 하게된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폭력에 관한 실증적자료의 제공과 함께 그 양상을 밝혀보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이성교제에서 갈등표출행동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갈등표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갈등표출행동 중 폭력행동을 하게된 경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이성교제에서의 갈등과 폭력행동

갈등은 어떤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파트너들은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흥미나 관심, 요구와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Peterson, 1983). 특히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으며, 암시적이고 영향력이 강한 친밀한 관계에서는 불일치가 일어날 기회가 더 많으며 바로 이러한 특징이 관계에서 폭력행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Gelles & Straus, 1979; Goode, 1971).

최근에 이성교제에서 폭력행동의 발생을 보고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갈등수준이 높으면 결혼전 이성교제에서도 폭력행동이 나타나며, 이것은 결혼폭력행동만큼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Cate, Henton, Christopher, & Lloyd, 1982; Stets &

Pirog-Good, 1987; Burke, Stets, & Pirog-Good, 1988). 또 대부분의 이성관계에서 갈등표출행동과 공격유형은 결혼 결정 훨씬 이전 단계에서 형성되며 (Lloyd, 1987), 결혼전 관계에서의 폭력행동의 유형은 결혼폭력행동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에 영향을 주어 결혼전에 폭력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결혼전 폭력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적게 가졌으며, 결혼에서의 폭력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한다(Flynn, 1987).

2. 갈등표출행동

갈등표출행동은 이성교제 파트너들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표출하는 모든 언행을 말한다. Straus (1979)는 갈등표출행동에 이성적 방법(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그리고 폭력행동(Violence)이 있다고 하였다.

이성적 방법은 갈등시 토론, 논쟁 등으로 이성적인 접근을 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다음으로 언어적 공격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모욕을 주거나, 끝내기, 심술부리기, 울기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폭력행동은 갈등을 표출하는데 육체적인 힘(force), 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야기할 의도를 수반한 행동이다. 특히 이성교제에서의 폭력행동은 “이성과 교제하는 과정속에서 미혼이며 한쌍의 관계에 있는 한 파트너가 상대 파트너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garman & Hotaling, 1990).

3. 갈등표출행동과 배경변인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5개의 개인적 변인(性, 부모의 폭력목격, 자신의 체벌경험, 폭력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과 3개의 관계변인(데이트빈도, 교제기간, 관계의 긴밀성)을 배경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이들 변인은 선행연구에서 갈등표출행동중 언어적 공격, 폭력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1) 개인적 변인

性에 따른 갈등표출행동을 보면,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공격적이지만(Stets, 1990; Straus & Gelles, 1990; Sugarman & Hotaling, 1989) 그 크기와 강도면에서 남성들의 갈등표출행동이 파트너에게 더 심각한 상해를 준다고 한다(Stets & Straus, 1990).

Ulbrich와 Huber(1981)는 부모간의 폭력행동이 자녀의 폭력행동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자란 남성은 여성에 대한 폭력행동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때의 체벌경험과 이성교제에서의 폭력행동사이에 정적상관이 발견(Bernard & Bernard, 1983)되었는데, 어릴 때 신체적 체벌로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체벌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적게 경험한 사람보다 이성교제에서 더 폭력적인 경향이 있었다.

부모의 폭력목격과 체벌경험은 폭력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폭력행동에 대해 보다 허용적으로 되게 한다.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명백한 폭력행위(예;찰싹 때리기, 주먹으로 치기, 건어차기 등)를 폭력이 아니라고 보며, 갈등이나 스트레스, 혹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수용하여 이성교제에서도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Stets & Pirog-Good, 1987). Cate와 동료들(1982)은 이성교제에서 폭력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관계에서의 폭력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적게 가졌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아의 중요한 측면이다(Rosenberg, 1979). 결혼과 이성교제 관련문헌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폭력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Burke, Stets & Pirog-Good, 1988).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Kaplan(Burk et al, 1988에서 재인용)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2) 관계 변인

데이트빈도가 폭력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Stets & Pirog-Good, 1987)에서 여성의 경우, 데이

트빈도가 많을수록 폭력행동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Arias, Samios 및 O'Leary(1987)는 파트너와 교제해온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폭력행동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사실 만나는 시간이 길고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파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서 폭력적인 갈등표출행동의 빈도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계의 긴밀성이란 이성교제 파트너가 그들의 관계에 관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더욱 심각한 관계는 상대방의 불안과 약점간파와 같은 정보소유면에서 결혼관계와 유사하여 조그만 문제로도 갈등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Stets, 199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계가 깊을수록 폭력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음이 밝혀졌다(Arias, Samios, & O'Leary, 1987; 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Stets & Pirog-Good, 1987).

4. 폭력행동의 경위

이성과 교제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폭력행동의 빈도나 형태는 그러한 행동을 둘러싼 경위에 대한 정보를 주지는 못한다. 즉 갈등표출행동의 단순한 빈도와 형태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한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몇몇 연구자들(Stets, 1992; Stets & Henderson, 1991; Billingham, 1987)은 이성교제동안 갈등표출행동의 경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성교제 파트너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잘못된 의사소통, 미래설계, 성적문제, 관계에 대한 헌신 등이며, 특히 파트너의 다른 이성에 대한 질투가 가장 심각한 갈등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갈등을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장소는 주

로 응답자나 파트너의 집이나 차안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장소였다. 폭력행동을 하게된 동기와 그 결과는 폭력행동의 가해자였느냐 아니면 피해자였느냐에 따라 다양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로는 폭력행동에 관련한 파트너들이 폭력은 그들 관계에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이다. 도리어 가벼운 폭력행동은 "사랑"의 표시라 생각해 그후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였다. 이 상에서 이성교제에서의 폭력행동의 경위는 파트너들 간의 폭력행동에 대해 상세하고 폭넓은 정보를 알아 보는데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5개 종합대학교(부산대, 동아대, 수산대, 경성대, 동의대)에 재학중이며, 이성과 교제중인 남·여 대학생 각각 222명과 178명이었다.

지난 1년동안 최소 2개월에 걸쳐 한사람(동일인)과 최소 6번 이상 데이트해 온 사람을 기준(Stets & Pirog-Good, 1987; Stets & Henderson, 1991; Stets, 1992. 참고)으로 하였다.¹⁾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표1에 나타나 있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변인을 측정하였으며, 질문지는 크게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묻는 질문과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들로 되어 있다. 2부는 갈등표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폭력행동을 하게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변인들의 측정방법이다.

1) 표집된 응답자들 중 교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지금까지 교제해 온 기간내에 발생한 갈등표출행동의 빈도가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구 분	N	%
性	전 체	400	100
	남 성	222	55.5
	여 성	178	44.5
연 령	18 - 20세	162	40.5
	21 - 23세	90	32.5
	24 - 26세	100	25.1
	27세 이상	7	1.9
학 년	1 학년	96	24.6
	2 학년	131	33.5
	3 학년	84	21.5
	4 학년	80	20.5
아버지의 직업	전문직	55	13.7
	관리직	78	19.5
	사무직	56	14.0
	판매직	106	26.5
	숙련직	38	9.5
	반숙련직	6	1.5
	비숙련직	8	2.0
	무직	27	6.7
아버지의 교육수준	국졸	26	6.5
	중졸	59	14.7
	고졸	164	41.0
	전문대졸	10	2.5
	대졸	110	27.5
대학원이상	12	3.0	
가정의 월수입	70만원 미만	41	10.9
	70 - 90만원	44	11.7
	90 - 110만원	61	16.3
	110 - 130만원	51	13.6
	130 - 150만원	45	12.0
	150 - 170만원	32	8.5
	170 - 200만원	31	7.7
	200만원 이상	70	18.7

1) 갈등표출행동

갈등표출행동척도²⁾는 Straus(1979)의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를 번역하여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다. 갈등전략척도의 각 문항은 상대방과 문제를 의논하기와 같은 위압성이 전혀 없는 것에서 시작하여 뒷 문항으로 갈수록 때리거나 치기와 같은 위압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문항이며, 응답범주는 각 행동의 빈도로 “전혀 없다”에서 “1달에 1번이상”의 여섯 범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폭력의 목적과 체벌경험³⁾

(1) 폭력의 목적

폭력의 목적은 Stets(1990)가 사용한 질문내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10대였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2문항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의 목적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2) 체벌경험

체벌경험은 Stets(1990)가 사용한 질문내용을 번안하여 응답자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체벌로서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의 경험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3)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Stets(1990)가 사용한 질문내용을 번안 수정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건 남성이 여성(파트너)에게 그리고 여성이 남성(파트너)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

2) 본 연구에서는 갈등표출행동척도 16문항을 폭력성의 유무와 강도를 기준으로 평정하여 사용했는데, 심리학과 박사과정생들(남3, 여3)이 평정에 참여했다. 그결과 문항1, 2, 3, 7번(갈등이 생겼을 때 비교적 조용히 의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 정도, 갈등이 생겼을 때 비교적 조용히 의논한 정도, 갈등해결방안으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 경우, 의견이 불일치될 때 뿌루뭉개 있거나 문제에 대해 의논하길 회피한 경우)은 폭력성이 전혀 없는 ‘온건행동’으로, 문항5, 8, 10번(말다툼시 고통을 치지 않았지만 흥분된 말이 오간 정도, 다룰때 발을 구른다든지, 문을 세게

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임을 나타낸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척도는 Rosenberg(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79$ 였다.

5) 폭력행동의 경위

폭력행동의 경위는 응답자들이 갈등을 표출할 때, 앞서 응답한 갈등표출행동척도에서 가장 강압적인 행동을 했던 경험 중 가장 최근의 사건⁴⁾을 회상하여 그때 갈등의 원인과 갈등표출행동,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동기와 파트너의 반응, 그것이 관계에 미친 영향, 부차적으로 갈등표출장소와 음주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것은 개방식 자유응답으로 획득되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 앞서 1991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대학교에 재학중인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이 다소 어색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평가된 내용은 수정하고 보충설명을 덧붙였다. 본조사는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자와 각 대학교(부산대, 동아대, 수산대, 경성대, 동의대)마다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4명의 조사원이 직접 남녀대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4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3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0.4 퍼센트였다. 응답이 불충실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많은 34부를 제외한 400부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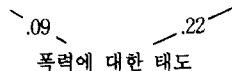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

닫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다들때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는 정도)은 약한 폭력성을 지닌 '무례행동'으로, 문항6, 11, 12, 13번(의견이 불일치될 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정도, 다들때 상대방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치거나 건어찬 정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려 했거나 때리려 위협한 경우,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진 경우)은 중간 정도의 폭력성을 지닌 '공격행동'으로, 문항14, 15, 16번(다들때 상대방을 밀거나 움켜잡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상대방을 손바닥으로 (뽀 등을)때린 경우,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은 강한 폭력성을 지닌 '폭력행동'으로 평정되었다. 문항4, 9번(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해결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한 정도, 다들때 물어버린 경우)은 어느 범주에 넣기가 애매하여 제외하였다. 4행동 중 온건행동은 폭력성이 전혀 없는 행동이며, 무례, 공격, 폭력행동으로 갈수록 폭력성이 증가하도록 구성되었다. 갈등표출행동에 따라 응답자도 4행동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한 문항이라도 '폭력행동'에 속하는 문항까지 응답한 사람은 폭력행동집단으로, '공격행동'에 속하는 문항까지 응답한 사람은 공격행동집단으로, '무례행동'에 속하는 문항까지 응답한 사람은 무례행동집단으로, '온건행동'에 속하는 문항에만 응답한 사람은 온건행동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 부모의 폭력목적, 자신의 체벌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간에는 상관이 거의 없거나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폭력목적 — .34 — 자신의 체벌경험



4) 응답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행동의 경위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거나, 응답자들은 폭력행동이란 말에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성향으로 왜곡되게 보고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의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반드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의 경위가 아닐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자료분석시 폭력행동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의 것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면 이들의 경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빈도분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갈등표출행동의 전반적 경향

이성교제시 갈등표출행동의 경향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온건·무례행동은 물론 상대방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거나 건어차기,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려 했거나 때리려 위협하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까지 한 사람이 36.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폭력행동은 사용하지 않았음). 다음으로 폭력·공격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온건행동을 포함해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구르며 문을 세게 닫는 등 무례한 행동까지 한 사람이 26.7퍼센트였으며, 그다음으로 상대방을 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기, 상대방의 뺨을 때린 다든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까지 행한 사람이 24.7퍼센트였다. 그리고 폭력·공격·무례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조용히 의논해서 해결하려 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하는 등 온건한 행동만 한 사람은 5.5퍼센트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조용히 의논하거나 정보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온건한 행동만 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흥분된 말이 오가고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려하기와 같은 무례하며 다분히 공격적이라 할 수 있는 행동까지가 널리 행

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성교제에서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까지 한 경우도 25퍼센트에 달했다.

2. 갈등표출행동과 배경변인의 관련성

갈등표출행동(폭력, 공격, 무례, 온건행동)과 배경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개인적 변인인 부모의 폭력목적($X^2=8.20, p<.05$)과 폭력에 대한 태도($X^2=10.76, p<.05$)만이 네 유형의 갈등표출행동과 관련성이 있었다.

즉 응답자가 10대였을 때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했적이 있었던 집단에서 공격행동은 물론 폭력행동까지 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반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했 적이 없었던 집단에서는 온건한 행동만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그리고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 즉 상황에 따라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폭력에 비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 즉 어떤 상황에서건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폭력행동을 훨씬 더 많이 하였다. 그의 공격·무례·온건행동을 한 사람의 비율은 두 집단에서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갈등표출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성교제를 하는 남녀 대학생들의 갈등표출행동은 성장시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고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공격과 폭력행동과 같은 과격한 행동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갈등표출행동의 전반적 방향

갈등표출행동	N	(%)
폭력행동	99	(24.7)
공격행동	144	(36.0)
무례행동	107	(26.7)
온건행동	22	(5.5)
무응답	28	(7.0)
전체	400	(100.0)

3. 폭력행동의 경위

갈등표출행동 문항 중 폭력행동이라 정의한 3문항(14, 15, 16번 문항)에 응답하여 폭력행동을 한 사람은 9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5%를 차지하였다. 응답기재가 부실한 21명의 것을 제외한 7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다음은 폭력행동의 경위를 표로 제시한

〈표 3-1〉 개인적 변인과 갈등표출행동의 빈도분포

	폭력행동 N (%)	공격행동 N (%)	무례행동 N (%)	온건행동 N (%)	총
〈性〉					
남 성	56(26.7)	80(38.1)	60(28.6)	14(6.7)	210(100)
여 성	43(26.5)	64(39.5)	47(29.0)	8(4.9)	162(100)
전 체	99(26.5)	144(38.7)	107(29.0)	22(5.9)	372(100)
〈부모의 폭력목적〉					
목적한 적 無	81(24.9)	125(38.5)	101(31.1)	18(5.5)	325(100)
목적한 적 有	18(38.3)	19(40.4)	6(12.8)	4(8.5)	47(100)
전 체	99(26.6)*	144(38.7)*	107(28.8)*	22(5.9)*	372(100)
					$\chi^2=8.20^*$
〈폭력에 대한 태도〉					
비허용적	32(18.9)	68(40.2)	56(33.1)	13(7.7)	169(100)
허용적	67(33.0)	76(37.4)	51(25.1)	9(4.4)	203(100)
전 체	99(26.6)*	144(38.7)	107(28.8)	22(5.8)	372(100)
					$\chi^2=10.76^*$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40(25.2)	66(41.5)	43(27.0)	10(6.3)	159(100)
높은 집단	59(27.7)	78(36.6)	64(30.0)	12(5.6)	213(100)
전 체	99(26.6)	144(38.7)	107(28.8)	22(5.8)	372(100)

* P<.05

〈표 3-2〉 관계변인과 갈등표출행동의 빈도분포

	폭력행동 N (%)	공격행동 N (%)	무례행동 N (%)	온건행동 N (%)	총
〈교제기간〉					
12개월 미만	43(24.6)	68(38.9)	50(28.6)	14(8.0)	175(100)
12개월 이상	56(28.4)	76(38.6)	57(28.9)	8(4.1)	197(100)
전 체	99(26.6)	144(38.7)	107(28.8)	22(5.9)	372(100)
〈데이트빈도〉					
주2-3회 미만	61(26.0)	93(39.6)	68(28.9)	13(5.5)	235(100)
주2-3회 이상	38(27.7)	51(37.2)	39(28.5)	9(6.6)	137(100)
전 체	99(26.6)	144(38.7)	107(28.8)	22(5.9)	372(100)
〈관계의 긴밀성〉					
사랑하지 않는 관계	52(26.8)	75(38.7)	54(27.8)	13(6.7)	194(100)
사랑하는 관계	47(26.4)	69(38.8)	53(29.8)	9(5.1)	178(100)
전 체	99(26.6)	144(38.7)	107(28.8)	22(5.9)	372(100)

〈표 4〉 폭력행동집단의 갈등표출행동 경위 (N=78)

		N
갈등원	의견차이	16
	결혼·장래문제	11
	질투	9
	서로의 감정확인	8
	파트너의 무관심 소홀	8
	성격차이	6
	성적접촉의 거부	4
	기타(데이트비용3, 약속시간 불이행3, 자존심 상하는 언행3, 이해심부족2, 파트너의 음주행동2, 친 구협담2)	15
갈등표출행동	침묵 회피	28
	말다툼, 소리지르기	11
	때리기	8
	기타(울기4, 설명3, 폭음2)	9
동기	자신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13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11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10
	화났음을 보이기 위해	9
	기타(침착성의 상실로7, 파트너를 통제하려고7, 파트너의 언어적 공격에 대한 반응5, 감정손상4, 먼저 맞은 것에 앙갚음하려고1)	24
음주여부	음주하지 않은 상태	50
	음주한 상태	24
갈등표출장소	공공장소(술집, 카페, 커피점, 학교내, 레스토랑)	36
	비교적 사적인 장소(한적한 거리, 해변, 차안, 공원, 건물내부)·	11
	파트너나 자신의 집	7
기타(장소무관, 길거리, 전화상)	20	
반응	파트너-침묵 회피	24
	사과	21
	문제논의	15
	기타(언어적 공격9, 운다5, 웃는다1)	15
	응답자-사과	25
	침묵 회피	24
	문제논의	14
기타(언어적 공격5, 화풀림2, 신체적 공격1, 웃는다1)	9	
파트너와의 관계	예전과 같다	39
	헤어졌다	19
	더 좋아졌다	17

것으로, 엄밀히 말해 폭력행동집단의 갈등표출행동 경위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기,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든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와 같은 폭력행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겪는 주요 갈등원인을 보면 의견차이, 결혼과 장래문제, 질투, 서로의 감정확인, 파트너의 무관심·소홀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 이러한 갈등에 대한 표출행동으로는 침묵·회피하기, 소리지르며 말다툼하기, 파트너를 때리기 순으로 나타났는데 폭력적인 행동과 함께 침묵·회피와 같은 온건한 행동도 많아 폭력행동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폭력행동은 자신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표현하려는 동기에서 행해졌다. 갈등표출행동이 일어난 장소는 카페, 커피점, 학교내와 같은 공공장소가 단연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비교적 사적인 장소, 파트너나 자신의 집이었으며 전화상이나 길거리에서도 일어났다. 음주여부를 보면 갈등표출행동을 할 당시 음주한 상태가 50명, 음주하지 않은 상태가 24명이었다. 이러한 갈등상황에서 파트너의 반응은 침묵·회피, 사과, 문제논의 등이었고, 응답자 역시 사과, 침묵·회피, 문제논의 등의 행동을 취했다. 갈등사건후 파트너와의 관계는 예전과 같다가 39명, 헤어졌다가 19명, 더 좋아졌다가 17명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1. 갈등표출행동의 전반적 경향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남녀 대학생들은 의논과 같은 온건한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흥분된 말이 오가고 발을 구르는 등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도 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려 하는 등 무례함을 지나쳐 다소 공격적인 행동도 상당수가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어느정도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의

사소통의 미숙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교제하는 남녀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해서 상대방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행동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연구결과 25퍼센트에 달하는 응답자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이들의 폭력행동 횟수는 평균 1년에 1회정도였으나, 25퍼센트란 수치는 간과될 수 없으며 사실상 이성교제하는 대학생들 사이에 "폭력"행동이 우려되는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빈도만으로는 속단하기에 조심스러우며, 폭력행동의 경위를 통해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갈등표출행동과 배경변인의 관련성

갈등표출행동은 개인적 변인인 부모의 폭력목적, 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성이 있었다.

첫째, 응답자가 10대였을 때 부모들간의 폭력행동을 목격한 집단이 폭력행동을 많이 했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온건한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다. 즉 폭력적이며 학대받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이성과의 교제에서도 폭력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원가족에서 학대를 관찰했거나 경험한 경우 자신이 학대적이 될수 있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후의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학대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Bernard 와 Bernard(대한 가정학회편, 1990에서 재인용)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폭력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전 그리고 결혼폭력행동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한 선행연구(Cate et al., 1982; Henton et al., 1983; Deal & Wampler, 1986)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3. 폭력행동의 경위

폭력행동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이 자기개방식

으로 진술한 최근의 심각한 갈등다툼에 대한 경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갈등원인에는 의견불일치, 결혼·장래문제, 질투, 서로의 감정확인, 파트너의 무관심·소홀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갈등원인으로 볼 때 교체하는 이성과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장래 배우자로도 여길 수 있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갈등표출행동은 침묵 회피하기가 가장 많았고 말다툼, 소리지르기, 때리기 등으로 최근의 갈등다툼에서 취한 행동이 다분히 공격적인 것으로 보아 그 관계에 공격행동이나 폭력행동이 종종 발생했을 것이라고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취한 행동의 동기는 자신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자신의 입장을 더 강하게 표현하려고,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의 순이었다. 따라서 응답자가 행한 갈등표출행동은 파트너와 잘해보려는 의도였으나 의사전달의 미숙과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음주한 상태에서는 자제력이 둔해지며, 음주는 결혼관계에서도 가장 위험한 폭력행동의 조성자며(Hotaling & Sugarman, 1986), 이성교제에서의 폭력행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Stets & Henderson, 1991)에 따라 검토되었는데, 음주여부에 응답한 74명중 50명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였고 24명은 음주한 상태였다. 총 응답자 중 30퍼센트 이상이 음주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크다하겠다.

갈등표출행동은 차집이나 음식점, 학교내, 차안, 야외에서 발생해 공공적이거나 사적인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갈등표출행동을 하는 것은 남녀관계에 제3자가 간섭하거나 개입하기를 꺼리는 일반적인 대중의 관념 때문인 것 같다.

갈등표출시 파트너와 응답자 자신의 행동은 상호 교환적임이 발견되었는데 즉 파트너의 폭력행동유형에 따라서 그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이성교제에서 폭력행동의 경험은 궁극적으로 관계의 종말을 이끄는가? 이것은 폭력행동의 경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성교제에

서의 폭력행동경험이 결혼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결혼전 그리고 결혼관계에서의 폭력행동을 “관계폭력(relationships violence)”이라 통합하여 가족전문가들에게 모델을 제시한 Flynn(1987)은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성교제에서 폭력행동의 경험 후 관계의 지속 혹은 종말여부는 결혼관계에서의 폭력행동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 갈등사건후 대부분이 예전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였고, 오히려 더 좋아진 경우도 있었던 반면 관계를 끝냈다는 경우는 적었다. 우선 이렇게 폭력행동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었다는 것은 파트너들이 폭력행동을 “사랑”을 표현하는 한 수단으로 해석하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보고 용서함을 뜻한다 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건 관계에서 불일치나 갈등의 반응으로 폭력행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폭력행동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다시 관계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된다(Sugarman & Hotaling, 1989).

이상의 폭력행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갈등표출행동 경위로부터 폭력행동은 친밀한 관계에서 더 발생되는 것 같고,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장래의 배우자로서 서로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하는 파트너들은 폭력행동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거나 우발적인 실수로 해석하는 듯하나 이것은 후속연구에서 더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폭력행동은 그 경위로 볼 때는 사회문제화 될만큼 심각한 현상은 아니라 할 수 있으며, 갈등발생시 적절한 표출행동을 찾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폭력을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보다 이성적이고 건설적으로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온건한 행동에서부터 폭력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행동을 한다.

둘째, 성장시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고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사람이 온건한 행동보다는 폭력 행동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경향이다.

세째, 대학생들은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 폭력행동이 발생해도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으로 보아 폭력행동을 사랑이나 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거나 한 두번의 감정적 실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사회문제화될만한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폭력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성적인 갈등표출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사회표면화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성교제하는 남녀모두가 긍정적이며 이성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표출해 나가는 기술을 습득해 나간다면 도리어 갈등을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제언을 한다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갈등표출행동의 경향을 검토하여 더욱 일반화된 결과가 제시되길 바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으나 우리 관념과 행동에 맞는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강호철(1985),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경상대 대학원 석사논문.
- 2) 김양희(1989), 가족관계학. 수학사.
- 3) 김정옥(1986),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 폭력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제23권, 2호.
- 4) 대한가정학회편(1990), 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아동학·가족학, 서울교문사.
- 5)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6) 이명교(1985), 도시부부의 권력구조와 갈등해결표출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7) 이신영(1984),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8) 최신덕(1974), 한국 남녀대학생의 데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25집.
- 9) Barnes G.E., Greenwood S., & Sommer R.(1991), Courtship violence in a canadian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40 37-44.
- 10) Billingham R.E.(1987), Courtship violence: the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cross seven levels of emotional commitment. Family Relations, 36, 283-289.
- 11) Burke P.J., Stets J.E., & Pirog-Good(1988). Gender identity, self-esteem,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50, no.3, 272-285.
- 12) Flynn C.P.(1987), Relationships violence: a model for family professionals. Family Relations, 36, 295-299.
- 13) Follingstad D.R., Wright S., Lloyd S. & Sebastain J.A.(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40, 51-57.
- 14) Gwartney-Gibbs P.A., Stockard J., & Bohmers (1987), Learning courtships agg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s, peers, and personal experience. Family Relations, 36, 276-282.
- 15) Lloyd S.A.(1987), Conflict in premarital relationships: differential perception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36, 290-294.
- 16) Llodly S.A.(1991), The darkside of courtships: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Family Relations, 40, 14-20.
- 17) Lloyd S.A., Koval J.E., & Cate R.M.(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Pirog-Good M.A. & Stets J.E. (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pp.53-71).
- 18) Makepeace J.M.(1981), Courtships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 19) Makepeace J.M.(1986), Gender differences in

- courtships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 35, 383-388.
- 20) Pirog-Good M.A. & Stets J.E.(1989),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 21) Rusbult C.E.(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olvement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5, no.1, 101-117.
- 22) Stets J.E. & Pirog-Good(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50, no.3, 237-246.
- 23) Stets J.E. & Henderson D.A.(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s*, 40, 29-36.
- 24) Stets J.E.(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165-177.
- 25) Strau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 *J. of Marriage and Family*, 2, 75-88.
- 26) Ulbrich P. & Huber J.(1981), Observing parental violence: distribution and effects. *J. of Marriage and Family*, 44, 623-631.